



거짓 Thrive Montgomery 2050은 동네에 2세대, 3세대, 4세대 주택 및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사실 Thrive Montgomery 2050은 정책 문서로서 어떤 동네에서도 구역 지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Thrive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권장하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고, 오래된 사무실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며, 주택을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고, 기존 적정 가격의 주거 단위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입 가능한 주택 전략 이니셔티브는 카운티 의회가 몽고메리 카운티의 주민에게 적절한 규모, 위치 및 가격대의 새로운 주택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요청한 별도의 프로젝트입니다.

거짓 Thrive Montgomery 2050은 자동차를 반대(anti-car)하며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Thrive Montgomery 2050은 자동차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도보 이동 등 모든 거주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매력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몽고메리 카운티는 다른 교통수단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주로 자동차 운전 중심의 거리와 지역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수년간 자동차 이동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 양질의 대중교통 옵션이 제한되고/되거나 자전거와 도보 이동에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생겼습니다. Thrive는 여행자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안전하고 편리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Thrive는 빈 공간을 채우고 재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회랑지대에서의 미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도로를 더 안전하게 개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동차 운전을 선택하겠지만 도보 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더 편해지고 실현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몽고메리 카운티는 더 많은 주민과 근로자를 더 지속 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Thrive Montgomery 2050에는 환경 회복력, 인종 평등 또는 경제 건전성과 관련된 전용 권고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Thrive Montgomery 2050의 3대 목표, 즉 경제 건전성, 공동체 형평성 및 환경 회복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은 전체 계획에 걸쳐 짜여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각 결과가 계획의 각 장에 얼마나 기초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계획은 위원회와의 협력에서 각 장의 3대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거짓 Thrive Montgomery 2050은 카운티의 농업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사실 Thrive Montgomery 2050은 농업 이용과 환경적 혜택을 위해 농업 보호구역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향후 성장은 보호구역으로부터 멀리하여 농촌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은 농업 보호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의 논거를 제시하고 모든 주민에게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면서 토지 사용에 대한 농촌적 패턴의 필요성을 강화합니다.

거짓 Thrive Montgomery 2050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Thrive Montgomery 2050이 출범하기 전 워싱턴 광역권정부협의회(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 MWCOG)가 개발한 예측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향후 수십 년 동안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증가할 것입니다. Thrive Montgomery 2050의 목표는 개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더욱 압축적이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회랑지대를 따라 빈 공간을 채우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확장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Thrive Montgomery 2050의 권고 사항이 이행되면 카운티는 기업, 고용주, 그리고 미래의 주민들에게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카운티의 현재 경제 건전성은 좋지 않으며, Thrive는 이를 개선하여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가져올 새로운 고용주를 유치함으로써 과세 표준을 증가시킬 것입니다.